



오르가슴을 느끼면 여성들도 사정을 할까?

환자들이 가끔 물어오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대답은 양론이 맞서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는 입장에서는 G부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은 대부분 사정을 한다고 말한다. 일부 여성에게는 질 입구에서 3-4cm 들이간 곳 앞쪽으로 콩알만한 크기의 부위가 있고, 만져보면 스펀지 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다.

1950년대 독일 의사인 그레펜베르크가 처음으로 발견해서 보고했고, 30여 년 후인 80년대에 페리 등이 4백여 명의 여성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를 확인하여 'G부위'(G spot)라고 이름지었다.

'G부위'는 요도를 따라서 방광의 목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남성의 음경 해면체와 같은 조직에 둘러싸여 있어 남성의 전립선과 흡사한 조직이다. 이 부위는 평소에는 잘 만져지지 않지만 성적 인 자극을 받으면 10원짜리 동전만하게 커지므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G부위가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 많은 여성들은 방광이 비어 있어도 마치 소변을 볼 것 같은 충동 즉 사정감을 느끼고, 자극이 계속되면 성적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일부 여성들은 오르가슴만 느끼고 또 다른 여성들은 오르가슴을 느끼면서 마치 요도로 부터 소변이 힘차게 방출되는 것과 같은 현상(사정)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액체는 소변 냄새가 나지 않는다. 마치 우유를 희석시켜놓은 것과 같은 액체이다.

그 후 10여 년 동안 이 현상은 여섯 차례의 연구를 통해 다시 평가되는가 하면 화학적인 분석도 행해졌다. 두 개의 연구는 여성에게도 사정이 있으며 사정시 배출되는 액체는 소변이 아니라고 보고했고, 한 연구는 여성도 사정을 하지만 그 내용물은 소변이라고 했다. 나머지 세 개의 연구는 여성의 사정현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여성도 사정을 한다고 주장하는 의학자들은 10-30% 이상의 여성이 사정을 하며, 이들은 G부위가 발달한 사람들이며 성감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여성의 사정이라는 것을 단순히 근육의 이완 때문에 생긴 소변의 방출로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양론이 맞서기 때문에 잡지나 책에서

'여성의 사정'이나 'G부위'를 확립된 사실처럼 쓰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여성에게는 오몸이 성감대가 된다. 신체적인 것 뿐만이 아니다. 약 10%의 여성은 환상만으로도 오르가슴을 얻는다. 어떤 여성들은 이 현상이 창피해서 오르가슴을 억제하기도 한다. 이 부분의 자극으로 얻는 오르가슴과 음핵의 자극으로 얻는 오르가슴은 다르다. 평상시에 소변 조절에 큰 문제가 없는 여성이라면 '사정'을 큰 문제로 생각하거나 창피하다는 이유로 오르가슴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여성의 질안의 감각은 사람마다 다르다. 일부에서 얘기되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는 것보다 각 개인이 어떤지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결론도 없다. 아마도 여성의 사정에는 몇몇 종류의 다른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제일 가능성이 많은 것은 소변이다. 비록 방광을 비우고 성행위를 하더라도 소변은 어느 정도 남아 있게 마련인데 강한 오르가슴에 도달하면 질과 방광 주위의 근육이 수축해서 남아 있는 소변을 방출하는 것이다. 몇몇 학자들이 촬영한 비디오에서 보면 분출되는 모양이 꼭 소변 보는 것과 닮았다.

G부위는 일반적인 산부인과적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성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마스터스와 존슨의「인간의 성반응」이후 많은 성의학적 연구가 이뤄졌지만 '왜 여성에게 오르가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의문으로 남아 있다.

남성의 오르가슴은 '사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려는 것'으로 쉽게 정의된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임신을 하는데 오르가슴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때문에 여성의 오르가슴은 마치 이제는 필요없게 된 남성의 젖꼭지 같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근 영국 의학잡지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실린 적이 있다. 한 남성의 콘돔이 성행위 후에 없어졌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그것이 여성의 자궁경부 안쪽에 있더라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한 의사는 여성의 오르가슴이 정자를 난자 쪽으로 더 가깝게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 후 영국 의학자들은 '여성이 남성처럼 항상 오르가슴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호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





이 아닌가' 라는 가설을 전제로 이를 증명해보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3백회 이상의 성교를 관찰하면서 성교 후 질 밖에 나온 정자수를 계산했다.

그 결과 남성이 사정하기 1분 전부터 45분 후 사이에 오르가슴을 느끼면 여성이 몸 안에 정자를 더 많이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말하자면 오르가슴을 전혀 느끼지 않았을 때나 남성이 사정하기 1분 이전에 오르가슴을 느꼈을 때는 여성의 몸 안에 정자가 더 적다는 것이다.

2년 전에는 오르가슴 때에 여성의 자궁 경부가 질 밑부분을 마치 해파리처럼 0.8초 간격으로 빨아들이는 것이 내시경으로 촬영되어 세상에 공개되기도 했다.

즉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오르가슴을 조절해 수태가 잘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르가슴에 관한 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능숙하다. 남성의 성교 기술이나 여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정도는 오르가슴의 빈도를 증가시키지 않았다. 그보다는 남성의 우수한 유전자에 달려 있다. 결국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오르가슴도 보다 좋은 후손을 만들기 위한 진화과정의 산물이라는 얘기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라도 비슷한 예를 볼 수 있다. 일부 원숭들도 오르가슴을 느끼는데 암컷의 오르가슴은 수컷보다 약간 선행하던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 역시 질의 수축을 통해 수컷이 사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질을 통한 것이건 음핵을 통한 것이건 오르가슴은 다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이전까지 학계를 지배하던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인 '질을 통한 오르가슴이 음핵을 통한 오르가슴보다 더 성숙하다'는 것이었는데 마스터스와 존슨이 '실험실에서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 보고한 것이다.

그 뒤부터 지금까지 질을 통한 오르가슴이 좀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라는 정신분석학적 입장을 옹호하는 연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위를 통한 오르가슴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내가 성행위 때 오르가슴을 느꼈는지 안느꼈는지 잘 모른다. 성기능 장애로 클리닉을 찾은 남성들에게 조루나 발기부전의 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위해서는 부인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충고해주고, 부인에게 불감증이 있는지 물어보면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남성이 절반도 안된다.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학자들은 '여성이 오르가슴을 가장하는 이유는 다른 남성과 관계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한다. 즉 비밀스러운 섹스에서 여성이 갖게 되는 정자수가 더 많기 때문에 원래 상대의 정자를 보호하는 척 하기 위해서 오르가슴을 가장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여성들도 50% 정도는 성교 행위만으로 오르가슴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남편과의 부부관계에 의해서 극치감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비정상적이라고 믿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남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오르가슴을 가장하기도 한다.

남성이란 여자의 오르가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멋지게 자기부인에게 쾌감을 주었다는 자만에 빠져서 그녀가 원하는 음핵 자극을 해주지 않는다. 이러한 불행한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좌절한다.

오르가슴에 대해서는 설도 많고 의견도 분분하다.

오르가슴은 사람마다, 때마다 차이가 있으며, 신체적으로 강한 수축이 있다고 반드시 좋다고만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약한 심리적 오르가슴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7]



<편집자 주 : 이 원고는 설현욱 박사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sex-academy.com>)에 게재된 원고를 필자의 동의 하에 실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02-512-1101)>